

## THE CHURCH IN TORONTO

열 두 광주리 가득히 아침부흥 제 17 주

제단과 성막의 생활

2008년 4 월 28일 ~ 5월 10일

## 제 1 부: 성경 말씀과 찬송

찬송: 434, 169, 561, -, 248 (영 589, 208, 776, 588, 312)

성경: 창세기 12:1-20; 13:1-18; 22:1-29; 출애굽기 20:24-26; 34:18-28

## 제 2 부: 계시와 진리를 위한 아침부흥

## 제 17 주 : 제단과 성막의 생활

☞ ☞ ☞ ☞ ☞ 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 고린도후서 5:9

9. ...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 📖 고린도후서 6:4상, 10

4.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군으로 자천하여 ...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 제단과 성막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제단과 성막의 생활이다.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반면 성막은 세상을 향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단을 쌓고 이 땅에 성막을 지을 것을 요구하신다. 제단은 성막이 요구되며, 성막은 반대로 제단을 요구한다. 성막이 없는 제단이란 있을 수 없으며 제단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막을 짓기란 불가능하다. 제단과 성막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은 분리될 수 없다.

## ◆ 제단의 생활

창세기 12장 7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라 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제단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기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곳에 제단은 없다. 아무도 처음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모든 소유를 드릴 수 없다. 헌신은 사람의 권고나 설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이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제단에 놓을 수 없다. 천연적으로 아무도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 자신을 그리고자 할 때에도 그는 그가 정말로 아무것도 드릴게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사람은 하나님 편으로 올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동시에 그의 생활 가운데 헌신하게 된다. 만약 단지 한번만 하나님의 시각을 잡았으며 단한번 하나님을 접촉했다면, 당신은 더이상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접촉할 수 없는 그 어떤분이다! 사람이 일단 하나님을 접촉하면, 그는 더이상 그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없다.

☞ ☞ ☞ ☞ ☞ **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에베소서 1:12下-14**

- 12.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
- 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 14.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하나님의 임재로 새 유업으로 옮겨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헌신에 대하여 말하는 자는 결코 필연적으로 그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있다. 헌신을 전파하거나 헌신의 교리를 이해하는 자 모두가 자신을 드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본 자만이 자신을 드린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즉시 발생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세운 것이다. 주 예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으며, 바울은 즉각적으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행 22:10)라고 물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전환점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려는 우리의 결정을 통하여 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에 대한 우리의 해결 결과에 따라 오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온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 더이상 과거에 하던 것을 할 수 없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된다. 자아를 부인하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더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 나갈 수 없게 만든다. 이는 그가 더이상 그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게 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소멸하지 않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 그와 같은 임재는 한 사람의 인생의 전 과정을 제단에 올려 놓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능력은 하나님을 보는 것에 달려 있다. 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단을 쌓는 것은 제단을 쌓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다. 제단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실 때 쌓아진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으므로 인하여 주께 감사하자. 하지만 많은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을 택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창 15:18)고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새로운 유업으로 옮겼다. 그것은 성령께서 훗날 충만 가운데 소유하게 될 유업의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게 해 준다. 성령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받았던 부분은 장래에 전부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유업으로 들어갈 것이다.

☞ ☞ ☞ ☞ ☞ **수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 사도행전 22:10上

10.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

### 📖 에베소서 6:10

10. ...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자 아브라함은 하나의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은 속죄제를 아닌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속죄제는 자신의 속죄를 위한 것이지만 번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제단은 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가를 말하고 있다. 이 제단은 바로 로마서 12장의 제단과 같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 말한 것과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주님을 우리 대신 죽도록 예비하

셨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도록 예비하셨고, 마귀를 처리하는 십자가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 안에서 사는 생명을 예비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번제를 드릴 때 역량 있는 사람이라면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릴 수 있고, 만약 소 한 마리를 드릴 역량이 없다면 양 한마리를 드릴 수 있고, 양을 드릴 역량이 없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다(레 1:3, 10, 14). 그러나 드리는 것이 소든지 양이든지 산비둘기든지 집비둘기든지 반드시 전체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은 반 마리의 소나 반 마리의 양을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전체이다. 하나님은 절반의 드림, 불완전한 드림을 원치 않으신다.

번제를 제단에 놓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 저것을 하는 것을 드리는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태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마리 소로 하여금 그분을 위하여 땅을 갈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소가 제단에서 불살라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마리 소로 하여금 그분을 위하여 땅을 갈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사람을 원하고 우리 전체를 그분을 위하여 불사르고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 제단의 뜻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제단의 뜻은 분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모든 활동으로 제단을 대치할 수 없고, 모든 일로 제단을 대치할 수 없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 생활하는 것이 바로 제단의 생활인 것이다. 신약 안에서의 제사는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것과같이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으로서 구약 때와 같이 한 번 불사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제단에서 불사르며 생활하는 것이다. 계속 생활하는 것이 계속 불사르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 안에서의 제사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번 나타나자, 그는 드리게 되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도 완전히 드리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서도 그대로 냉정하게 앉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면 곧 제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곧 드리게 된다. 하나님의 자비함을 보면 산 제사가 있게 되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곧,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말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이론을 들어 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격려를 받아 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즉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다. 형제 자매가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것이다. 한번 하나님의 나타남을 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타남은 그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한다. 교회의 이천 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

☞ ☞ ☞ ☞ ☞ 목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고린도후서 5:7, 14-15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도 우리가 생각거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장막의 생활

제단의 결과는 장막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8절에서는 『거서서 벧엘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라고 말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인 벧엘에 거했다. 그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장막을 세운 것이다. 아브라함이 나올 때에 장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장막을 언급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갖게 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장막을 보여 준다.

무엇을 장막이라고 부르는가? 장막의 뜻은 유동적인 것이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제단으로 여러분 자신을 처리하시고, 장막으로 여러분에게 속한 것들을 처리하신다. 아브라함은 제단에서 그의 일체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그에게는 옷조차도 없는 것인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소와 양도 있었고 그 밖의 많은 것들도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잔막 안에 사는 사람이었다. 환언하면 제단에서 남는 것은 장막에만 보류할 수 있었다. 이것이 원칙이다. 여러분의 모든 물건은 제단에 놓아야 하고, 남는 것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장막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라야 할 것은, 제단을 거치지 않은 것은 장막 안에 들여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단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완전히 불살라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물건들이 제단에

놓여지자마자 불살라지고 없어져 버린다. 많은 물건들이 하나님께 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여러분에게 남겨 주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제단에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 두시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다. 제단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남겨 준 이러한 것은 오직 장막 안에서 보존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생활은 계속 제단의 생활이었다. 어느 날 그는 독생자까지도 제단에 놓았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삭을 데려가지 않으셨다. 그렇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단에 놓은 것을 확실히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없게 하고, 자기의 기호대로 살 수 없게 하고, 자기의 능력대로 살 수 없게 한다. 제단은 여러분의 소유를 완전히 거두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단에 있는 것을 반드시 모두 불사르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이삭과 같이, 여러분이 제단에 놓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주시기도 한다. 다만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더이상 여러분의 것으로 여길 수 없고 장막 안에만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묻는다. 『만약 내가 소유를 모두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면 나는 마땅히 소유를 다 팔아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나와서 다 뿌려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내 집에는 단지 의자 몇 개와 책상과 몇 벌의 옷만 남길 수 있겠군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생활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의 생활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소유는 확실히 제단에 있지만, 세상의 생활에서 아직도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는 데 역시 의식주가 필요하다. 나는 마땅히 모든 소유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 『이것은 보류할 수 있다.』 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남겨 둘 것이다.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장막의 원칙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물건들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남겨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버릴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거들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될 수 없다. 이러한 것은 나의 수중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더해도 되고 빼도 된다. 이것이 바로 장막의 생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우리는 제단을 거치질 않는 것을 사용할 수 없고, 제단에 놓은 것은 우리 스스로 가지고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이 제단에

서 남기신 것은 장막의 원칙으로 지켜야 한다.

☞ ☞ ☞ ☞ ☞ **금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고린도전서 9:13**

13.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 **고린도전서 10:18**

18.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두번째 제단**

창세기 12장 8절에서 말하기를, 『거기서 벧엘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벧엘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라고 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두번째 제단이야. 제단은 장막으로 인도하고, 장막은 또 당신을 인도하여 제단으로 돌아오게 한다. 제단이 있게 되면 모든 소유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 어떤 것도 당신을 붙잡는 것은 없다. 당신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다면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한 가지도 당신에게 드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장막은 반드시 당신을 인도하여 제단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만약 당신 것의 뿌리가 자라서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 없고 놓아 버리려고 해도 놓을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들에 의해 단단히 붙잡혀 두번째 제단을 갖지 못하게 된다.

당신은 제단에서 드릴 때 당신의 일체를 다 드린 것이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용하도록 남겨 두시겠지만 당신 스스로 어떤 것은 장막 안에 둘 것이며 어떤 것은 제단 위에 놓은 후에 다시 가져와야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없다. 당신의 일체를 제단에 놓아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남겨 주신 것은 장막으로 가져다 놓아야 한다. 장막 안에 놓는 모든 것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남길 수 있다고 하시면 남길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라도 당신 임의로 정하여 남길 수 없다. 모든 것은 먼저 제단을 거치고 먼저 하나님에게 물은 다음에 비로소 장막 안에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장막 안에 둔 것은 언제든지 돌아 갈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것은 남겨 둘 필요가 없다.』 고 말씀하실 때에는 즉시 그것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손에 쥐고서,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제단의 마음이 부족한 것이고 드리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두번

째 제단으로 돌아 갈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 나는 당신을 위하여 삽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일체를 제단에 놓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 준 모든 것을 장막에 두기를 원하신다. 장막에 둔 후에 비로소 두번째 제단을 갖게 된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두번째 제단이다. 우리는 한 번 격려를 받아 열심을 내서 드리지만 삼 년, 오 년이 지나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모으게 되고 제단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기가 쉽다. 우리의 생활이 계속 장막의 생활이라면, 우리가 능히 두번째 제단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아! 문제는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드림이 어떠한 것인가에 있다.

☞ ☞ ☞ ☞ ☞ **토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베드로전서 2:5**

5. 너희도 ...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찌니라

📖 **고린도전서 1:9**

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 **고린도후서 13:13**

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제단과 장막의 회복**

아브라함도 실패한 적이 있었다. 일찌기 제단을 떠나고 장막을 떠나 애굽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회복했다. 어떻게 회복했는가? 창세기 13장 3절 4절에서는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벨엘에 이르며 벨엘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고 말한다. 제단과 장막으로 돌아온 것을 회복이라고 부른다. 오늘 실패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실족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변절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나 사모함이나 추구가 생기지 않았는가? 회복의 길로 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제단과 장막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회복은 바로 다시 장막의 위치로 돌아온 것이고 다시 제

단의 위치로 돌아온 것임을 보여 준다. 회복은 장막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제단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돌아와서 어떻게 했는가? 18절에서 말하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고 했다.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다. 영원한 교통, 계속적인 교통이 거기에 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와서 거하며 헤브론에서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영원히 제단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자. 우리가 드림의 긴요함을 보고 제단과 장막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하자.

### ◆ 추구 자료 ◆

(주) 인용된 문장은 워치만 니의 『제단과 성전의 생활 (The Life of the Altar and the Tent)』에 기초한 것입니다. 강조를 위하여 굵은 글씨나 밑줄 등이 첨가 되었습니다.

### 제 3 부: GTA 권속 교통

#### 1. 기도의 부담

1. ‘Jesus-And-Me’ 집회에 참석한 20 여명의 6학년 학생들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학생들 모두에게 주께서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 몬트리올(중국어)과 토론토(영어)에서 있을 Victoria Day Conference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이 행사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도록 이끄실 것과 참석한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만질 것을 기도합니다.

#### 2. 소식 및 안내

##### 기타 안내

- a. 주일 집회 메시지 비디오를 [www.churchintoronto.org](http://www.churchintoronto.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 비디오는 주기적으로 갱신될 것입니다.

#### 【집회 시간 및 집회소 안내】

Lord's Table	All Halls	Sunday, 10:00 AM	Sheppard Hall	671 Sheppard Ave. E., Toronto, ON M2K 1B6 (416) 221-7610
Young People	Sheppard	Saturday, 7:30 PM	Cecil Hall	24 Cecil St., Toronto, ON M5T 1N2 (416) 977-5588
College	Cecil	Friday, 7:30 PM	Gretna Hall	7 Gretna Ave., Toronto, ON M4A 2H5 (416) 757-7117
Grade 6	Gretna	Saturday, 7:00 PM	자매집회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한국어 자매 집회)
Prayer Meeting	Sheppard/Gretna	Tuesday, 7:30 PM	소그룹1	매주 화요일, 오전 11:00시 (한국어 가정 소그룹)
	Cecil	Tuesday, 7:00 PM	소그룹2	매주 수요일, 저녁 7:00 (한국어 가정 소그룹2)
Web Page	<a href="http://www.churchintoronto.org">www.churchintoronto.org</a>		Web Page2	<a href="http://www.thechurchintoronto.ca">www.thechurchintoronto.ca</a>

(이 아침부흥지는 영어 아침 부흥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및 한글 아침 부흥지는 [www.thechurchintoronto.ca](http://www.thechurchintoronto.ca)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